2011년 한성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자 체 평 가 위 원 회

제1장 대학 개황

1. 대학현황

2. 비전 및 발전전략

1 대학현황

1.1 교육목표

(1) 설립목적

우리대학은 진리·지선을 건학 이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대학의 교육 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본교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고, 문화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회인을 육성하고, 열린 사고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2)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한성대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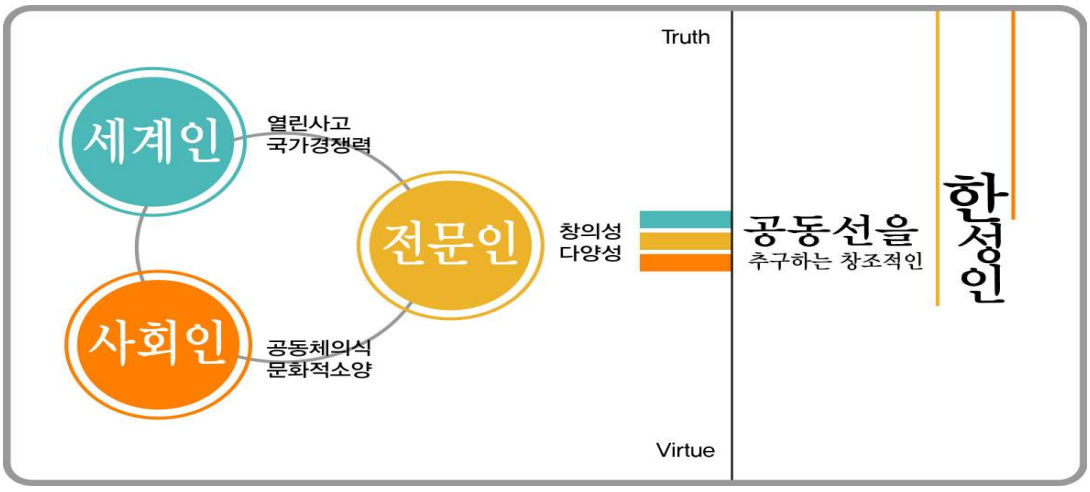
(가) 교육목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선(公同善)을 추구하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

(나)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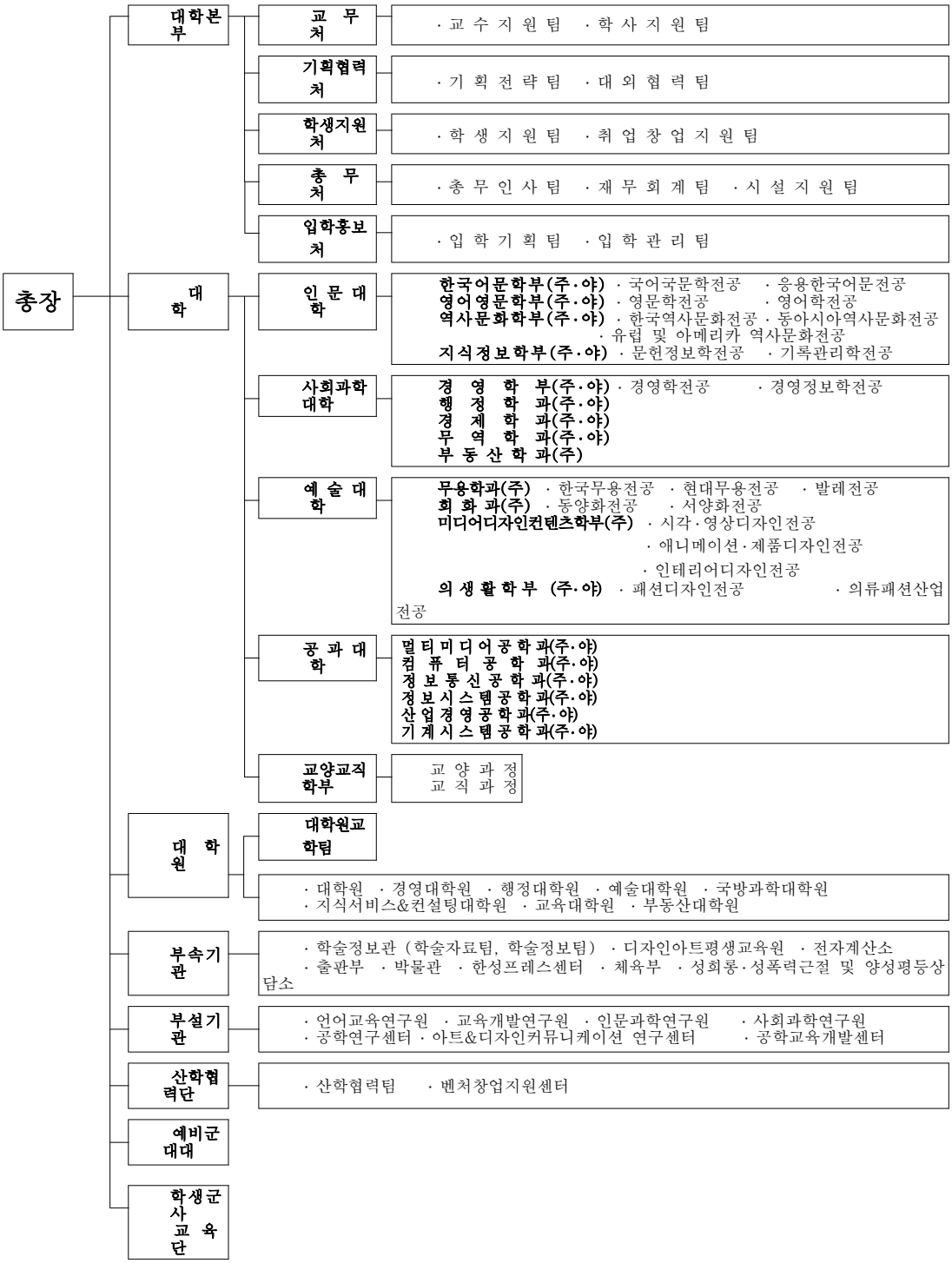
·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닌 전문인을 육성한다.
· 공동체의식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을 육성한다.
· 열린사고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육성한다.

<그림 1> 한성대학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1.2 행정조직 및 기구

<그림 2> 한성대학교 기구표



1.3 교직원 및 학생 현황

(1) 교원현황

<표 1> 한성대학교 교원현황 (2011. 10. 1기준)

계 열	현 인 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총장	계 (B)
인문사회계	50	15	17	22	1	105
공 학 계	41	10	8	1		60
예·체능계	32	10	6	2		50
계	123	35	31	25	1	215

(2) 직원현황

<표 2> 한성대학교 직원현황 (2011. 10. 1 기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계(명)
43	27	15	29	114
37.8%	23.7%	13.1%	2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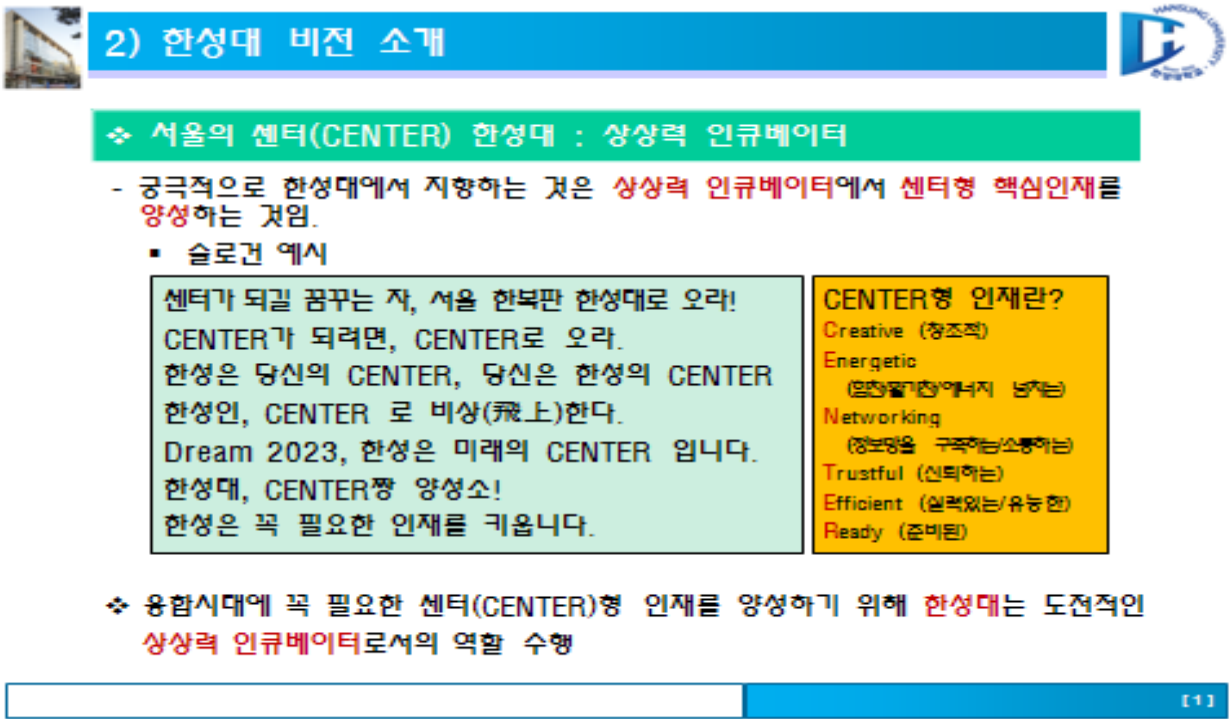
(3) 학생현황

<표 3> 한성대학교 학생현황 (2011. 10. 1 기준)

대학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인문대학	812	513	1,325	365	232	597	1,177	745	1,922
사회과학대학	1,186	860	2,046	705	498	1,203	1,891	1,358	3,249
예술대학	1,206	334	1,540	412	125	537	1,618	459	2,077
공과대학	1,108	693	1,801	720	434	1,154	1,828	1,127	2,955
계	4,312	2,400	6,712	2,202	1,289	3,491	6,514	3,689	10,203

2. 비전 및 발전전략

<그림 3> 한성대학교 비전



제2장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체평가 방법

3. 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4. 자체평가의 대상, 범위

5.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방향

1.1. 자체평가의 목적

(1) 자체평가 실시 목적 및 추진 방향

(가) 대학자체평가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11조 2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자체평가를 통해서 대학 스스로가 우리 대학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대학자체평가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함에 기초를 두되, 단과대학단위의 학과평가, 정부차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그룹간의 비교평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학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 대학자체평가를 통해서 한성대 Dream 2023의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

(2) 자체평가 발전 목표

(1)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위치를 파악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그룹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종합순위 5위 진입을 목표로 지표 달성에 주력하도록 한다.
(2)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3) 평가의 주안점

(1)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핵심지표 13개를 두어 행정부서와 학과 간의 유기적으로 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2) 핵심지표 13개와 영역별 지표 30개를 두어 총 4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자체평가는 기본 역량과 국제화(글로벌) 지표의 향상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우리 대학 자체 평가는 국제화 지표의 향상을 위하여 학과(전공)단위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에 힘쓴다.

(4) 평가 일정

<표 4> 자체평가 일정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자체평가연구·평가위원회 구성**	2011년 3월	
⬇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지표 개발 -자체평가자료 조사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2011년 5월 ~ 11월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심의	2011년 11월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결과 확정	2011년 12월	
⬇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	2011년 12월 ~ 계속	

2. 자체평가 방법

2.1 추진체계 및 조직

(1)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설치

평가의 독립성과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자체평가운영위원회는 한성대학교 기구표상 심의·의결기구이다. 한성대학교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대학 자체평가 기본 계획 및 시행 일정 수립, 자체평가 업무의 기획·조정·총괄, 정성평가, 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방안 결정, 다양한 평가 방법 개발 및 시행 방안 결정 등의 역할 수행할 예정이다.

(2) 자체평가 담당부서 운영

대학 본부 기획협력처 내에 대학 자체평가 담당부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평가 기획 및 관리, 대학 자체평가 기준 및 편람 개발, 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지원, 평가자료 수합 및 결과 산출, 평가 결과 공시 및 관리를 임무로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해당 년도의 자체평가 일정 및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 관련 기관에서 사전에 평가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자체평가 담당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고, 평가 지표 및 내용, 정량평가 절차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최종 승인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본부 및 관련기관, 단과대학, 대학원 등에 평가 결과와 해당 기관에서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해당 과제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제출된 보완계획에 대한 실천여부는 다음 년도 평가에서 집중 평가 항목으로 포함한다.

2.2 평가시스템 및 모형 (대상 및 범위/ 평가항목 및 지표 등)

※ 대학 자체 평가의 목적 및 기본 방향

1) 평가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평가 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예 : 특성화전략, 프로그램 개발 등)

2) 평가 방법 및 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한성대학교 자체평가 모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한성대학교 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평가내용의 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가) 2011년 우리 대학자체평가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들에 대한 정량평가 방법만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나) 정성평가는 피평가기관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성과들의 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가 투영될 수 있어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한성대학교 자체평가 모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방법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정량 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한성대학교의 경영, 국제화, 교육, 연구. 학생지원 등에 대한 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장점을 극대화함에 있다.

(2) 특성화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분석

(가) 자체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성대학교가 매년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함.

(나) 한성대학교의 자체평가는 한성대학교 및 단과대학, 대학원 등의 발전 정도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지수 개발 지향

(3) 한성대학교 차원과 학과 차원의 평가

(가) 한성대학교 자체평가는 한성대학교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학과 평가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한성대학교 전체 차원 평가는 대학본부이며, 학과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한성대학교 전체 수준의 현황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 학과 평가는 학문적, 행·재정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공통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사용

3. 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가) 대학 자체평가를 기획·조정·총괄하기 위해 대학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설치하였으며, 실무 담당부서를 기획협력처 산하에 기획협력팀이 자체 평가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나) 평가지표는 대학정보 공시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핵심지표, 영역별지표 [교육/연구성과, 학생, 교육여건, 대학재정/교육비, 대학운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경영해 가는 측면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자체평가의 대상, 범위

(1) 자체평가의 대상은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다. 즉, 대학자체평가는 대학 내의 특정 학과, 전공 또는 하부 조직 단위가 아닌 대학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기관으로 보고, 대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2) 정량평가는 대학 본부, 학과 등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량을 계산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평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모든 평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체 평가 지표 중 한성대학교의 발전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한성대학교 핵심지표라한다.

(4) 대학 자체평가는 주기적(매년 혹은 격년)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연도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지표는 연도별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표별 발전 경향을 분석하였다.

(가)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

(나)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 정착

(다) 대학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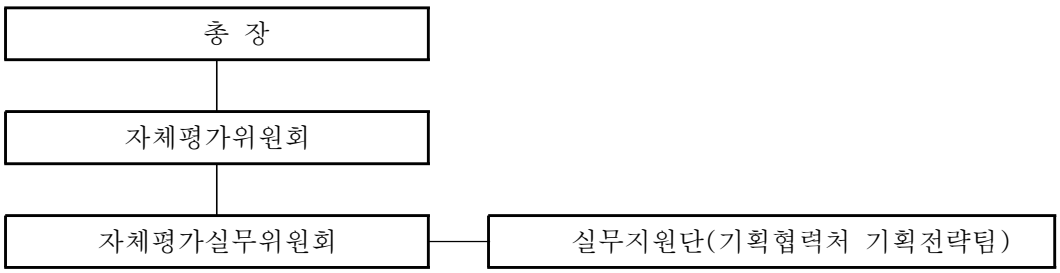
(라) 정보공시제를 기본으로 대학의 개방성과 공공성 확대

(마)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5.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5.1 추진조직

<표 5> 자체평가 추진조직표



(1)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 : 기획협력처장,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예술대학장, 공과대학장, 처장
- 역할 및 기능

① 자체평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③ 자체평가 관련 기구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자체평가연구·평가위원회의 제안 사항 심의
⑤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⑥ 기타 자체평가 관련 주요사항 심의

(2) 자체평가 실무위원회

- 구성 : 기획협력처장,
- 역할 및 기능

①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자체평가 심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
③ 자체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④ 대학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 자료 분석 및 비교 평가

(3) 실무지원단

- 구성 : 기획협력처 기획전략팀 (총 3명)
- 역할 및 기능 : 자체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표 6> 한성대학교 자체평가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위원장	기획협력처장	이 창 원	보직재임기간
위 원	인문대학장	조 인 숙	위촉직
	사회과학대학장	유 병 호	
	예술대학장	최 해 주	
	공과대학장	정 병 용	
	교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간 사	기획전략팀장	장 영 우	당연직

<표 7> 한성대학교 자체평가 실무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위원장	기획협력처장	이 창 원	보직재임기간
위 원	교수지원팀장	전 장 배	당연직 보직재임기간
	학사지원팀장	정 영 만	
	기획전략팀장	장 영 우	
	대외협력팀장	조 승 호	
	학생지원팀장	오 범 석	
	취업창업지원팀장	오 진 형	
	입학관리팀장	박 인 호	
	입학기획팀장	김 성 자	
간 사	기획전략팀 평가 담당	윤 구	임명직

<표 8> 실무지원단

성 명	소 속	직 위
장 영 우	기획협력처 기획전략팀	팀장
최 민 이	기획협력처 기획전략팀	팀원
윤 구	기획협력처 기획전략팀	팀원

제3장 자체평가 내용 및 결과

1 중요지표의 비교평가 대상 및 방법

2 결론 및 검토

1 중요지표의 비교평가 대상 및 방법

1.1 평가지표별 자료 수집

(1) 평가지표 비교대상 선정기준

(가) 2010년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비교하였음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학생수(재적생기준) 5천이상~1만5천명 이하 대상 대학교중에서 비교대상 그룹 20개 대학교를 선정하였음.

(다)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비교대상 그룹 20개 대학의 평가지표별 자료 수집.

(라) 평가지표별 자료를 비교대상 대학별 순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

(마) 평가지표별 한성대의 위치와 목표순위(5위권, 또는 10위권)에 따라 목표값 설정

(바) 목표값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2) 핵심지표와 중요지표의 비교

(가) 핵심지표의 비교

1) 대학 기관평가 인증제에 따른 필수 및 최소기준 평가지표
   대학 인증제에 필요한 필수 및 최소 평가지표의 조건 대비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교육여건 기본지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기준 확보

(나) 중요지표의 비교

1) 대외 대학평가(중앙일보 등)기관별 평가지수 파악을 통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2) 대외 평가지표 및 대학내 조직의 평가관리 체계의 연계성 분석

(3) 비교대상 20개교 대학교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학생수(재적생기준) 5천이상~1만5천명이하 그룹의 학교
(2010대학알리미 기준)

<표 17> 교육역량강화사업 준거대상 대학 (수도권 재적생 5천이상~1만5천명이하 그룹)

연번	학교명	재학생	재적생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1	가톨릭대학교	6,418	9,173	1,087
2	강남대학교	6,518	9,235	1,183
3	광운대학교	7,349	11,559	1,477
4	덕성여자대학교	5,145	6,240	709
5	동덕여자대학교	6,666	7,899	865
6	명지대학교	6,695	10,546	956
7	상명대학교	5,467	7,641	1,355
8	서강대학교	7,139	10,548	1,369
9	서경대학교	5,644	8,130	937
10	서울시립대학교	7,891	11,964	829
11	서울여자대학교	7,042	8,437	824
12	성신여자대학교	8,923	10,572	1,379
13	숙명여자대학교	9,512	11,719	1,344
14	아주대학교	8,861	13,500	1,157
15	용인대학교	5,628	8,170	781
16	인천대학교	7,910	11,234	1,191
17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7,376	10,648	1,580
18	한국항공대학교	3,913	5,932	697
19	한성대학교	6,149	9,457	1,057
20	한신대학교	4,974	7,517	461

1.2 핵심지표의 한성대 위치 분석

(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 준거,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80점 배점),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중앙일보(10점) 및 경향일보)

(가)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인증제 필수준거(61%이상 확보): 57.2%로 기준 미달 16위
(나)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정원과 재학생기준 중 낮은 수치사용하며, 1인당 학생수에 영향
(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 기준 36.6명 15위, 재학생기준 39.1명 15위

<표 18> 전임교원 확보율 비교표

학교명	●교원 확보율(%)					
	편제 정원	순위	재학생	순위	교원 확보율	순위
인천대학교	87.7	2	80.6	1	80.6	1
서울시립대학교	87.2	3	80.1	2	80.1	2
아주대학교	90.1	1	78.5	3	78.5	3
숙명여자대학교	74.2	5	71.8	4	71.8	4
한국외국어대학교	76.6	4	71.0	5	71.0	5
명지대학교	73.5	6	70.3	6	70.3	6
서강대학교	67.8	7	69.2	7	67.8	7
덕성여자대학교	67.6	8	63.4	8	63.4	8
서울여자대학교	65.4	13	61.4	9	61.4	9
강남대학교	66.7	10	61.1	10	61.1	10
서경대학교	66.9	9	61.0	11	61.0	11
한신대학교	61.5	14	60.5	12	60.5	12
성신여자대학교	65.5	12	60.3	13	60.3	13
가톨릭대학교	61.4	15	58.0	14	58.0	14
한국항공대학교	65.9	11	57.6	15	57.6	15
한성대학교	61.0	16	57.2	16	57.2	16
광운대학교	60.7	17	53.7	17	53.7	17
동덕여자대학교	54.2	18	53.5	18	53.5	18
용인대학교	49.3	20	47.9	19	47.9	19
상명대학교	50.3	19	46.3	20	46.3	20

(● 대학인증제 필수준거)

● 목표

○ 편제정원 기준으론 만족하나 재학생기준으로는 미달이 된다. 재학생수는 학기마다 변동하므로 기준 만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재학생수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61%이상을 위해 14명의 전임교원 확보필요

<표 19> 교원 1인당 학생수 비교표

학교명	교원1인당 학생수			
	편제 정원	순위	재학생	순위
아주대학교	22.6	1	26.1	1
인천대학교	25.0	2	27.2	2
서울시립대학교	25.2	3	27.5	3
명지대학교	27.5	4	28.7	4
숙명여자대학교	30.7	5	31.8	5
서강대학교	34.0	10	33.6	6
한국외국어대학교	32.4	7	35.0	7
덕성여자대학교	33.2	9	35.5	8
서경대학교	32.4	7	35.7	9
한국항공대학교	31.4	6	35.8	10
서울여자대학교	34.5	12	37.0	11
성신여자대학교	34.4	11	37.4	12
강남대학교	35.3	13	38.7	13
한신대학교	37.8	17	38.8	14
한성대학교	36.6	15	39.1	15
가톨릭대학교	37.3	16	39.4	16
광운대학교	35.8	14	40.5	17
동덕여자대학교	39.9	18	40.8	18
용인대학교	42.9	19	44.0	19
상명대학교	43.8	20	47.9	20

(2) 국제화 지수

-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20점 배점), 외국인 전임교수비율, 외국인 졸업생비율

(가) 국제화 지수: 0.023으로 6위권

국제화 지수 = 0.7*외국인 전임교수비율 + 0.3*외국인 졸업생 비율

(나) 외국인 전임교수 19명으로 2.84% 7위권 *최상위권 목표 핵심지표

(다) 외국인 졸업생 비율: 1%로 5위권 *최상위권 목표 핵심지표

<표 20> 국제화지수 비교표

연번	학교명	외국인 전임율	순위	외국인 졸업율	순위	국제화지수	순위
1	서경대학교	0.0953	1	0.002	11	0.067	1
2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0.0783	2	0.029	3	0.063	2
3	강남대학교	0.0500	3	0.018	4	0.040	3
4	명지대학교	0.0422	4	0.001	13	0.030	4
5	숙명여자대학교	0.0381	5	0.002	10	0.027	5
6	한성대학교	0.0284	7	0.010	5	0.023	6
7	한국항공대학교	0.0295	6	0.002	12	0.021	7
8	성신여자대학교	0.0277	8	0.001	14	0.020	8
9	상명대학교	0.0050	16	0.050	1	0.018	9
10	덕성여자대학교	0.0236	9	0.001	17	0.017	10
11	광운대학교	0.0049	17	0.035	2	0.014	11
12	서울시립대학교	0.0169	10	0.001	15	0.012	12
13	서강대학교	0.0133	13	0.008	7	0.012	13
14	서울여자대학교	0.0161	11	0.001	18	0.011	14
15	동덕여자대학교	0.0160	12	0.000	19	0.011	15
16	가톨릭대학교	0.0127	14	0.000	19	0.009	16
17	아주대학교	0.0080	15	0.003	9	0.007	17
18	용인대학교	0.0042	18	0.006	8	0.005	18
19	인천대학교	0.0008	20	0.009	6	0.003	19
20	한신대학교	0.0019	19	0.001	16	0.002	20

● 목표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5위권 4% 위해선 27명 필요(추가 8명 필요)]

[외국인 전임교수를 14명 채용(총인원 33명)하는 경우 4.93%, 3위권]

- ○ 외국인 전임교수비율, 영어강좌비율 등의 제고와 전임교수 확보율의 동시 제고위해 외국인 전임교원의 확보가 유리
- ○ 외부 평가에선 외국인 전임교수비율과 외국인 전임교수 국적의 다양성이 평가 지표이므로 미국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전임교수를 임용하는 정책 검토

[외국인 졸업생 비율: 4위권 2%, 3위권 3%]

- ○ 한국어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정원외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필요
- ○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연계하여 졸업율을 높이는 체계 고려

(3) 학사운영지수(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75점 배점)
– 성적평가지수, 소규모 강좌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시간강사료 비율

(가) 성적상대평가지수(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37.5점 배점), 소규모 강좌비율(15점)

(나) 성적상대평가지수: 0.396으로 7위권 *최상위권 목표 핵심지표
1) 교과부 학사운영지표 75점 배점중에서 50%인 37.5점 높은 배점
2)성적평가 관리 지수로 A,B학점 성적을 많이 줄수록 성적평가지수 낮아짐
3) 성적평가지수 = 1-(0.4*A비율+0.4*AB비율+0.2*ABC비율)

(다) 소규모(20명미만) 강좌비율 : 19.6%로 19위로 하위권

<표 21> 성적상대평가지수 순위표

학교명	A 비율	AB 비율	ABC 비율	성적평가 지수	순위
서경대학교	0.286	0.659	0.895	0.443	1
강남대학교	0.306	0.689	0.918	0.418	2
명지대학교	0.336	0.675	0.910	0.414	3
인천대학교	0.306	0.696	0.931	0.413	4
상명대학교	0.328	0.706	0.927	0.401	5
광운대학교	0.334	0.734	0.879	0.397	6
한성대학교	0.349	0.707	0.906	0.396	7
서강대학교	0.334	0.711	0.944	0.393	8
아주대학교	0.333	0.735	0.937	0.386	9
한국항공대학교	0.373	0.736	0.918	0.373	10
가톨릭대학교	0.381	0.739	0.944	0.363	11
덕성여자대학교	0.350	0.772	0.960	0.359	12
한신대학교	0.413	0.744	0.904	0.356	13
서울시립대학교	0.359	0.790	0.933	0.354	14
한국외국어대학교	0.422	0.730	0.938	0.352	15
숙명여자대학교	0.434	0.782	0.956	0.322	16
성신여자대학교	0.452	0.807	0.940	0.309	17
서울여자대학교	0.425	0.828	0.959	0.307	18
용인대학교	0.498	0.803	0.913	0.297	19
동덕여자대학교	0.515	0.831	0.928	0.276	20

<표 22> 소규모 강좌비율

학교명	소규모 강좌율	순위
서경대학교	0.443	1
강남대학교	0.441	2
상명대학교	0.415	3
한국외국어대학교	0.413	4
동덕여자대학교	0.391	5
성신여자대학교	0.355	6
서울여자대학교	0.340	7
숙명여자대학교	0.320	8
한신대학교	0.319	9
서울시립대학교	0.308	10
덕성여자대학교	0.298	11
가톨릭대학교	0.284	12
서강대학교	0.271	13
명지대학교	0.265	14
인천대학교	0.261	15
용인대학교	0.259	16
한국항공대학교	0.222	17
아주대학교	0.214	18
한성대학교	0.196	19
광운대학교	0.180	20

<표 23> 2010년도 1,2학기 개설된 총 강좌의 성적상대평가지수 분석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총계
	전임 교수	외국인 전임	겸임. 초빙	시간 강사	명예 기타	계	전임 교수	외국인 전임	겸임. 초빙	시간 강사	명예 기타	계	
A학점비율	0.341	0.353	0.427	0.379	0.459	0.361	0.331	0.389	0.281	0.301	0.278	0.316	0.340
B학점비율	0.365	0.408	0.360	0.361	0.286	0.363	0.354	0.332	0.399	0.380	0.390	0.370	0.366
C학점비율	0.212	0.118	0.174	0.192	0.167	0.201	0.189	0.161	0.213	0.217	0.204	0.204	0.202
성적상대평가지수	0.398	0.379	0.323	0.365	0.336	0.382	0.418	0.379	0.437	0.427	0.447	0.422	0.400

성적상대평가지수 = 1-(0.4*A비율+0.4*AB비율+0.2*ABC비율), 지수 높을수록 학점 관리됨(상대평가기준준수경우 0.4)

○ 교양과목이 전공과목보다 상대평가 성적기준을 잘 지킴
- 전공과목은 전임교수가 겸임초빙교수와 시간강사보다 성적기준 잘 지킴
- 교양과목은 겸임초빙교수와 시간강사가 전임교수에 비해 성적 박함

○ 전공과목의 상대평가 성적기준 준수 정책
- 학과평가 등에 평가지표로 반영

○ 성적평가지수는 자금 투입없이 배점 높은 지수의 최상위권 유지가 가능하고, 교육 중심대학으로 철저한 학점관리라는 명분상으로도 의미 있음

[성적상대평가지수 5위권 0.401]

○ 현재 교내 성적평가 기준 A-30%이내, AB-70% 이내를 모든 교강사가 지키면 지수는 0.4 이내로 5위권 가능함.

<표 24> 강좌당 학생수 분석표

학교명	20명 미만	순위	20~50명 미만	순위	50~100명 미만	순위	100~200명 미만	순위	200명 이상	순위
한성대학교	0.196	19	0.610	1	0.184	9	0.004	17	0.006	3
광운대학교	0.180	20	0.598	2	0.200	5	0.021	7	0.000	18
명지대학교	0.265	14	0.568	3	0.140	17	0.020	9	0.007	2
아주대학교	0.214	18	0.550	4	0.222	4	0.010	14	0.004	7
서울시립대학교	0.308	10	0.536	5	0.137	19	0.019	10	0.001	16
용인대학교	0.259	16	0.534	6	0.197	6	0.009	15	0.000	17
인천대학교	0.261	15	0.522	7	0.191	7	0.020	8	0.005	5
가톨릭대학교	0.284	12	0.521	8	0.165	11	0.026	5	0.003	8
덕성여자대학교	0.298	11	0.521	9	0.151	12	0.028	4	0.001	14
숙명여자대학교	0.320	8	0.499	10	0.144	15	0.033	3	0.004	6
서울여자대학교	0.340	7	0.491	11	0.142	16	0.015	11	0.011	1
성신여자대학교	0.355	6	0.468	12	0.150	13	0.024	6	0.003	11
동덕여자대학교	0.391	5	0.466	13	0.126	20	0.014	12	0.003	10
한신대학교	0.319	9	0.442	14	0.184	8	0.049	2	0.005	4
서강대학교	0.271	13	0.442	15	0.237	2	0.049	1	0.002	13
한국외국어대학교	0.413	4	0.438	16	0.146	14	0.003	19	0.000	19
서경대학교	0.443	1	0.418	17	0.138	18	0.002	20	0.000	20
한국항공대학교	0.222	17	0.403	18	0.361	1	0.012	13	0.002	12
강남대학교	0.441	2	0.376	19	0.176	10	0.004	18	0.003	9
상명대학교	0.415	3	0.343	20	0.236	3	0.005	16	0.001	15

● 목표

○ 소규모(20명미만) 강좌 비율은 높여야 함
[목표 10위권 전체강좌의 31%]
- 소규모 강좌비율 19.6%로 19위 하위권

○ 대규모100명이상 강좌비율은 낮추어야 함!
- 100~200명 미만 강좌비율은 4%로 17위(비율 낮음), 상위권임
- 200명 이상 강좌비율은 0.6%로 3위(비율 높음), 하위권임

(라) 전임교원 강의비율(11.25점), 시간강사료(11.25점)

○ 전임교수 강의 비율 50.8%로 6위 *최상위권 목표 핵심지표

○ 시간강사료 평균단가 35,725원으로 15위

○ 학사운영지수: 배점 높은 수가 높은 점수를 받아 10위권으로 예측됨
학사운영지수=0.5*성적상대평가지수+0.2*소규모강좌비율+0.15*(전임강의비율+시간강사료)

<표 25> 학사운영지수 종합 비교표

연번	학교명	전임 강의율	순위	시간 강사료	순위	학사 운영T지수	순위
1	서경대학교	0.435	16	34,323	16	0.969	1
2	강남대학교	0.497	7	31,000	19	0.721	2
3	서강대학교	0.514	5	54,000	1	0.703	3
4	명지대학교	0.572	4	37,000	12	0.557	4
5	아주대학교	0.619	2	45,311	2	0.447	5
6	인천대학교	0.444	14	40,000	5	0.357	6
7	상명대학교	0.364	20	36,305	13	0.344	7
8	서울시립대학교	0.596	3	39,913	7	0.135	8
9	한국항공대학교	0.634	1	35,915	14	0.096	9
10	한성대학교	0.508	6	35,725	15	0.026	10
11	광운대학교	0.461	11	38,244	10	−0.035	11
12	한신대학교	0.477	8	40,000	5	−0.051	12
13	가톨릭대학교	0.472	10	37,564	11	−0.142	13
14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0.413	17	33,064	18	−0.192	14
15	덕성여자대학교	0.456	13	34,306	17	−0.277	15
16	숙명여자대학교	0.477	9	44,000	3	−0.313	16
17	서울여자대학교	0.457	12	38,658	9	−0.614	17
18	성신여자대학교	0.405	19	38,913	8	−0.665	18
19	동덕여자대학교	0.411	18	41,045	4	−0.857	19
20	용인대학교	0.439	15	30,000	20	−1.209	20

● 목표

[전임교수 강의비율 5위권 55%, 3위권 60%]

○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교육중심대학으로 유리하며, 경제적임

<표 26> 2010년도 전임교수 및 강사의 강의관련 지수 요약표

구 분	전임교수		초빙,겸임	시간강사	명예,기타	합계
	한국	외국인				
연 단위 인원	195.5	19	86	346	14	660
연평균 총보수액/1인	100,109,248	39,907,175	10,905,610	9,021,156		
연간 총 강좌수	1,108	175	102	1,217	51	2,653
연간 총 시수	3,966	471	520	3,926		8,883
연간1인 학부강좌수	5.67	9.21	1.19	3.52	3.64	
연간 학부담당 시간	3,305	465	305	3,238	123	7,436
연간1인 학부시간	16.91	24.47	3.55	9.36	8.79	
시간당 비용	330,100	108,140	120,221	55,172		
영어강좌 수	22	161	1	8	0	192
강의평가 점수	4.069	4.228	4.073	3.888	3.962	4.003
영어강좌 비율	2.0%	92.0%	1.0%	0.7%	0.0%	7.2%
강의시간*인원수	48.8%	0.6%	0.3%	50.2%	0.1%	100%
연간담당 강좌비율	41.8%	6.6%	3.8%	45.9%	1.9%	100%
연간담당 시간비율	44.4%	6.3%	4.1%	43.5%	1.7%	100%
A학점 비율	33.8%	38.0%	39.4%	33.4%	37.9%	
B학점비율	36.2%	35.1%	36.9%	37.2%	33.2%	
C학점비율	20.5%	15.0%	18.3%	20.7%	18.3%	
성적평가지수	0.404	0.379	0.348	0.402	0.385	

성적평가지수 = 1-(0.4*A비율+0.4*AB비율+0.2*ABC비율)

● 전임교원(외국인 포함) 확보 방안

○ 외국인 전임교수는 늘리고(국적 다양성 고려), 초빙겸임교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 전임교수 연간 학부 강좌를 1인당 5.67강좌, 16.9시간 담당하고 있음(연구년 교수 포함)
- 초빙, 겸임교수는 연간 평균 1.19강좌 3.55시간으로 실제 강의 담당비율이 적음
- 초빙겸임교수 4인보다는 외국인 전임교수 1인 충원이 모든 지표를 상승시키고 효과적임
- 외국인 전임교수의 1인당 9.2강좌 24.5시간을 고려하면, 초빙겸임교수 4명의 연간 담당시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24.5시간 vs. 14.2시간), 비용은 더 지출됨(39,907,175원 vs. 43,622,440원).

<표 27>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61%(14명 충원) 확보를 위한 대안별 지표변화의 예시

평가 지표	대안 1 예시 내국인 4명, 외국인 10명 충원경우		대안 2 예시 내국인 2명, 외국인 12명 충원경우	
	예상 순위	지표 예측치	예상순위	지표 예측치
연간시간	16.9시간*4명+24.5시간*10명(충원비용) = 312.4시간(시간강사33.4명*9.4시간)		16.9시간*2명+24.5시간*12명(충원비용) =327.5시간(시간강사35명*9.4시간)	
연간 소요비용	○ 799,508,748(충원)-강사33명 감소 =498,400,000원-33명 4대보험료 ○ 799,508,748(충원)=겸임교수74명		○ 679,104,602(충원)-강사35명 감소 =363,410,000-35명 4대보험료 ○ 679,104,602=겸임교수 63명	
전임교원 확보율	10위	61.2%	10위	61.2%
외국인 전임교수비율	4위	4.34%	4위	4.63%
전임교수 강의비율	5위	54.9%	5위	55.1%
영어강좌 비율	공시항목 아님	10.1%	공시항목 아님	10.7%

● 전임교수 강의비율 제고 및 시간강사 수 감소 방안

○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가 효과적임

- 전임교원이 연간 9.36학점 초과강의를 하면 시간강사 1명이 줄어드는 효과임
-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한 4대보험 적용과 시간강사료를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선행된 후 되어야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

<표 28> 전임교원의 강의 관련 인센티브 현황

대학	교수수*	학부강의 시간		초과강의 수당		강의평가 인센티브		총학점인센티브		야간강의 수당		대형강의 수당		총금액
		학점	시간	인원	총금액	인원	총금액	인원	총금액	인원	총금액	인원	총금액	
인문대학	64	8.1	8.1	53	56,625,000	21	10,000,000	32	19,300,000	55	30,735,000	0	0	116,660,000
사회대학	94	7.5	7.5	88	117,750,000	30	12,800,000	63	50,360,000	67	37,089,000	1	1,125,000	217,999,000
예술대학	96	7.0	8.8	76	128,062,500	24	9,400,000	45	31,900,000	38	21,186,000	1	1,125,000	190,548,500
공과대학	116	9.0	9.4	102	162,637,500	51	20,900,000	69	44,305,000	86	43,008,001	0	0	270,850,501
교양교직	59	8.8	10.3	35	39,375,000	17	6,400,000	43	22,885,000	44	23,580,000	3	5,868,000	92,240,000
합계	429	8.1	8.8	354	504,450,000	143	59,500,000	252	168,750,000	290	155,598,001	5	8,118,000	888,298,001

(인원수는 1,2학기 누계임)

○ 교양과목의 2학점 단위를 3학점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현재 연 평균 346명의 시간강사에 대한 4대 보험료 적용과 강사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음
- 교양과목은 연평균 976강좌, 연평균 1,952학점 개설됨
- 현재 시간강사는 연간 3.52강좌를 담당함(교양과목은 강사1인당 평균 학기당 4학점 강의)
- 교양과목을 3학점 체제로 변경하면 전체 강좌수는 976강좌에서 2/3인 연평균 650개로 감소
- 3학점 체제로 변경하면 연간 교양 638 강좌를 시간강사 160명이 담당하던 체제에서

426강좌를 106명이 강의하는 체제로 54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줄어드는 효과 있음.
- 전체 강좌수를 줄임으로 관리 시간이 줄어들어 행정상 효과적이고, 학생들도 이수해야 할 교양 과목수가 2/3로 줄어 들게 됨
- 전임교수가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주야를 맡는 특성상 6시간(전공)+4시간(교양)시간 또는 4+4(교양)체제에서 6+6 체제가 되어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높아지는 효과 있음

○ 단과대학별 교양과목을 전임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설하고 전임교원이 담당
- 단과대학별 핵심A와 단과대학의 일반교양과목을 전임교원이 강의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모색
- 연구보다는 강의 교육을 원하는 전임교수들을 위하여 전공이외에 단과대학별 교양과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초과강사료를 높여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인다.
- 외국인 전임교수비율과 외국인 전임교수 국적의 다양성이 평가 지표이므로 미국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전임교수를 임용하여 전공 또는 단과대학 교양을 담당하는 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4) 교사 확보율(●필수 준거), 기숙사 수용율 (중앙일보 5점, 경향신문)

(가) 교사확보율 대학인증제 필수준거(100%이상): 84.9%로 기준 미달 16위
(나) 기숙사 수용율 2.0%로 16위

<표 29> 교사 확보율 현황표

학교명	●교사 확보율	순위
인천대학교	145.279	1
서강대학교	126.111	2
강남대학교	121.693	3
명지대학교	119.567	4
한국외국어대학교	118.610	5
아주대학교	118.343	6
숙명여자대학교	117.489	7
서울시립대학교	116.472	8
덕성여자대학교	111.727	9
서울여자대학교	107.598	10
서경대학교	104.796	11
가톨릭대학교	102.723	12
용인대학교	98.556	13
한신대학교	97.946	14
성신여자대학교	91.038	15
한성대학교	84.906	16
상명대학교	84.020	17
광운대학교	77.252	18
한국항공대학교	75.703	19
동덕여자대학교	58.739	20

<표 30> 기숙사 수용율

학교명	기숙사 수용율	순위
명지대학교	0.272	1
아주대학교	0.225	2
한신대학교	0.178	3
가톨릭대학교	0.136	4
서강대학교	0.125	5
강남대학교	0.122	6
서울여자대학교	0.110	7
인천대학교	0.101	8
한국항공대학교	0.100	9
용인대학교	0.087	10
한국외국어대학교	0.084	11
숙명여자대학교	0.074	12
서울시립대학교	0.064	13
덕성여자대학교	0.059	14
성신여자대학교	0.023	15
한성대학교	0.020	16
광운대학교	0.018	17
상명대학교	-	18
동덕여자대학교	-	18
서경대학교	-	18

● 목표

[교사 확보율 1차 목표 100%이상]

○ 현재 필수기준 100%에 미달하므로 필수 기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 필요.

- 교수 아파트, 학생 기숙사 등 증축에 따른 교사확보율 계산하여야 한다.

○ 증축에 따른 확보율 증가분에도 교사확보율 필수기준 100%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 투자 필요.

- 학생기숙사의 교사 증축은 교사 확보율과 기숙사 수용율을 동시에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 기숙사 증축에 따른 기숙사 수용율 증가분 최대화

(5) 신입생 충원율 (●필수 준거)

(가) 대학인증제 필수평가 준거(95.0%이상 확보): 98.5%로 18위권

(나)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 모집인원

<표 31> 신입생 충원율 비교표 (● 대학인증제 필수준거)

연번	학교명	●신입생 충원율	순위
1	강남대학교	100.121	1
2	서강대학교	100.000	2
3	아주대학교	100.000	2
4	한신대학교	99.921	4
5	성신여자대학교	99.820	5
6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99.703	6
7	인천대학교	99.653	7
8	명지대학교	99.652	8
9	숙명여자대학교	99.563	9
10	서울시립대학교	99.549	10
11	서울여자대학교	99.369	11
12	가톨릭대학교	99.327	12
13	한국항공대학교	99.309	13
14	광운대학교	99.092	14
15	서경대학교	98.877	15
16	덕성여자대학교	98.767	16
17	상명대학교	98.511	17
18	한성대학교	98.510	18
19	용인대학교	98.385	19
20	동덕여자대학교	98.370	20

● 목표

[신입생 충원율 10위권 99.6%]

ㅇ **신입생 충원율을 99.6%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입학 전형 체계의 도출 필요**

- 신입생 충원율이 낮았던 입시전형을 검토하여 대비책 검토
-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고, 공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관련 지수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재학생 충원율 (●필수 준거,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80점 배점)

(가) 대학인증제 필수평가 준거(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이상 확보)

(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94.9%(19위), 정원외 재학생 충원율 106.2%(17위)

(다) 재학생 충원율 지수(=0.6*정원외+0.4*정원내) 101.7%(17위)

(라) 비교대상 20개교 중에서 17위, 특히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19위 하위권

<표 32> 재학생 충원율

연번	학교명	●정원내	순위	정원외	순위	충원율 지수	순위
1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1.088	3	1.269	1	1.197	1
2	한국항공대학교	1.099	1	1.228	3	1.176	2
3	서강대학교	1.078	4	1.229	2	1.169	3
4	서울시립대학교	1.098	2	1.191	5	1.154	4
5	광운대학교	1.042	6	1.190	6	1.131	5
6	숙명여자대학교	1.044	5	1.161	8	1.114	6
7	상명대학교	0.976	16	1.174	7	1.095	7
8	인천대학교	1.025	7	1.136	10	1.091	8
9	성신여자대학교	1.005	10	1.137	9	1.085	9
10	가톨릭대학교	1.008	9	1.135	11	1.084	10
11	서울여자대학교	1.018	8	1.119	14	1.078	11
12	서경대학교	1.001	11	1.123	13	1.074	12
13	강남대학교	0.982	14	1.124	12	1.067	13
14	덕성여자대학교	0.997	12	1.114	15	1.067	14
15	동덕여자대학교	0.982	15	1.090	16	1.047	15
16	한신대학교	0.987	13	1.042	19	1.020	16
17	한성대학교	0.949	19	1.062	17	1.017	17
18	용인대학교	0.957	18	1.048	18	1.012	18
19	명지대학교	0.959	17	1.041	20	1.008	19
20	아주대학교	0.530	20	1.213	4	0.940	20

(● 대학인증제 필수준거)

● 목표 : 학교의 체계적인 정책 필요(부서별 협조체제 필요)
[10위권 정원내 100.6%, 정원외 113.6%, 충원율지수 108.4%]

- **재학생의 타교 편입 등 재학생 이탈 최소화 대책 필요**
  - 타 대학교로 편입하는 경우에 본교 편입생 모집정원은 감소하므로 최소화 시켜야 함
  - 결원이 생긴 편입모집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전과 및 야간의 주간 등을 포함한 본교 내에서의 결원 보충을 위한 정책 검토

- **정원외 재학생(외국인, 학사편입 등)의 증가를 위한 정책 필요**

(7) 교육비 환원율 (●필수 준거), 학생1인당 교육비(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45점 배점)

(가)교육비 환원율: 대학인증제 필수평가 준거(100%이상 확보)
103.87%로 국공립제외 13위권
교육비 환원율 = 직접교육비(교비+산학협력단) 총액/등록금 총액

(나) 1인당 교육비: 8,308,000원, 11위권
1인당 교육비 = 총 교육비(교비+산학협력단)/재학생수

(다)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면 1인당 교육비는 높아짐

<표 33> 교육비 환원율

연번	학교명	●교육비 환원율	순위
1	가톨릭대학교	196.046	1
2	아주대학교	192.034	2
3	한국항공대학교	163.167	3
4	서강대학교	162.055	4
5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122.595	5
6	광운대학교	121.876	6
7	덕성여자대학교	116.082	7
8	명지대학교	112.521	8
9	한신대학교	108.318	9
10	서울여자대학교	106.597	10
11	숙명여자대학교	106.422	11
12	강남대학교	104.551	12
13	한성대학교	103.872	13
14	용인대학교	90.308	14
15	동덕여자대학교	87.923	15
16	상명대학교	86.265	16
17	성신여자대학교	82.454	17
18	서경대학교	74.123	18
19	서울시립대학교	-	
20	인천대학교	-	

(● 대학인증제 필수준거) *국공립대학은 제외.

<표 34>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1인당 교육비	순위
1	아주대학교	15,988	1
2	서강대학교	14,996	2
3	가톨릭대학교	14,805	3
4	한국항공대학교	13,632	4
5	서울시립대학교	11,097	5
6	광운대학교	10,455	6
7	숙명여자대학교	9,685	7
8	인천대학교	9,253	8
9	명지대학교	9,151	9
10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8,467	10
11	한성대학교	8,308	11
12	덕성여자대학교	8,097	12
13	서울여자대학교	8,080	13
14	강남대학교	7,577	14
15	한신대학교	7,521	15
16	용인대학교	7,407	16
17	상명대학교	7,103	17
18	성신여자대학교	6,439	18
19	동덕여자대학교	6,394	19
20	서경대학교	5,896	20

● 목표
[교육비 환원율 10위권 107%이상 만족위해 1인당교육비 8,560,000원 필요]
(예시)

구분	10위권	
	목표	연간 추가 예산
1인당 교육비	8,560,000원	(8,560,000-8,308,000)*재학생수

(8) 장학생 지급율 (●필수 준거,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45점 배점), 1인당 장학금

(가) 장학금 지급율(교내외 장학금 총액/등록금 총액) 대학인증제 필수평가 준거(10%이상 확보)
12%로 국공립제외 6위권 *최상위권 목표 핵심지표

(나) 1인당 장학금 지급액 1,159,900원으로 11위권

<표 35> 장학금 지급율

학교명	●장학금 지급율	순위
한국항공대학교	0.191	1
서울여자대학교	0.157	2
덕성여자대학교	0.153	3
숙명여자대학교	0.137	4
용인대학교	0.121	5
한성대학교	0.120	6
성신여자대학교	0.117	7
동덕여자대학교	0.115	8
서강대학교	0.115	9
한신대학교	0.111	10
강남대학교	0.107	11
아주대학교	0.104	12
광운대학교	0.102	13
서경대학교	0.080	14
가톨릭대학교	0.079	15
한국외국어대학교	0.078	16
상명대학교	0.063	17
명지대학교	0.052	18
서울시립대학교	–	
인천대학교	–	

<표 36> 1인당 장학금

학교명	1인당 장학금	순위
한국항공대학교	1897.5	1
숙명여자대학교	1693.8	2
서강대학교	1603.6	3
서울여자대학교	1383.4	4
서울시립대학교	1368.9	5
아주대학교	1343.5	6
한국외국어대학교	1309.8	7
인천대학교	1254.6	8
덕성여자대학교	1182.0	9
용인대학교	1180.8	10
한성대학교	1159.9	11
상명대학교	1156.6	12
광운대학교	1094.5	13
성신여자대학교	1091.4	14
명지대학교	1065.8	15
가톨릭대학교	967.9	16
동덕여자대학교	926.9	17
한신대학교	898.4	18
강남대학교	892	19
서경대학교	733.7	20

(● 대학인증제 필수준거) *국공립대학은 제외

● 목표

[장학금 지급율 5위권 13%]

○ 교내 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 유치 방안 필요

– (예시) 한성대 발전기금중에서 장학금 지정 기탁은 교외 장학금 유치 효과

장학금 지급률	5위권(13%)
연간 추가 필요 금액	장학금 지출 총액=0.13*등록금 총액

[1인당 장학금 5위권 1,300,000원]

○ 장학금 지급율 5위권을 유지하며,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높이는 정책 필요

– 장학금 지급율이 높아지면 1인당 장학금은 높아지나, 장학금 수혜인원을 줄이면 더 높아짐

(9) 취업율 지수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80점 배점)

(가) 취업율 47.6%로 13위
취업률(64점) = 6,12월 건강DB 평균 취업률 + 6월 해외취업률

(나) 2011년도부터는 취업유지율과 취업률 지수 도입
취업유지율(16점) = 6,9,12월 모두 건강DB등록 취업자 / 6월 건강DB등록 취업자
취업률지수 = 0.8*(6,12월평균+6월해외율) + 0.2*취업유지율

<표 37> 취업률 지수

연번	학교명	취업율	순위	*취업유지율	순위	취업지수	순위
1	한국항공대학교	65.1	1			52.080	1
2	아주대학교	64.3	2			51.440	2
3	서강대학교	63.7	3			50.960	3
4	서울시립대학교	61.1	4			48.880	4
5	광운대학교	58.7	5			46.960	5
6	숙명여자대학교	57.9	6			46.320	6
7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56.9	7			45.520	7
8	인천대학교	54.5	8			43.600	8
9	명지대학교	52.5	9			42.000	9
10	서울여자대학교	49.2	10			39.360	10
11	강남대학교	48.1	11			38.480	11
12	가톨릭대학교	48.1	11			38.480	11
13	한성대학교	47.6	13			38.080	13
14	덕성여자대학교	45.8	14			36.640	14
15	서경대학교	44.6	15			35.680	15
16	용인대학교	43.3	16			34.640	16
17	성신여자대학교	43.1	17			34.480	17
18	동덕여자대학교	42.4	18			33.920	18
19	한신대학교	41.7	19			33.360	19
20	상명대학교	39.8	20			31.840	20

* 취업유지율은 2011년도 지표.

● 목표
[취업율 5위권 59%, 10위권 50%]

(10) 학부생 비율 (교과부 기본 교육지표 60점 배점)

<표 38> 학부생 비율 비교표

연 번	학교명	학부생 비율	순위
1	강남대학교	0.983	1
2	한신대학교	0.974	2
3	서울여자대학교	0.972	3
4	용인대학교	0.971	4
5	덕성여자대학교	0.969	5
6	서경대학교	0.968	6
7	한성대학교	0.954	7
8	성신여자대학교	0.944	8
9	인천대학교	0.935	9
10	상명대학교	0.932	10
11	광운대학교	0.923	11
12	한국항공대학교	0.909	12
13	숙명여자대학교	0.905	13
14	한국외국어대학교_본교	0.904	14
15	서강대학교	0.890	15
16	명지대학교	0.884	16
17	서울시립대학교	0.881	17
18	아주대학교	0.867	18
19	가톨릭대학교	0.844	19
20	동덕여자대학교	0.836	20

● 목표

○ **일반대학원과 학부생 정원이 변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는 지표임**

1.3 중요지표의 한성대 위치 분석

(1) 외국인 재적생 비율 및 다양성(중앙 15점), 교환학생 비율(중앙 15점)

(가) 중앙일보 국제화 평가지수

(나) 외국인 재적생비율 1.5% 8위, 교환학생 파견비율 0.3% 10위로 상위권

<표 39> 외국인 재적생비율

연번	학교명	외국인 재적생 비율	순위
1	상명대학교	0.095	1
2	한국외국어대학교	0.045	2
3	서경대학교	0.044	3
4	광운대학교	0.040	4
5	강남대학교	0.037	5
6	가톨릭대학교	0.025	6
7	인천대학교	0.016	7
8	한성대학교	0.015	8
9	서강대학교	0.015	9
10	용인대학교	0.011	10
11	아주대학교	0.009	11
12	서울시립대학교	0.009	12
13	숙명여자대학교	0.009	13
14	한신대학교	0.008	14
15	명지대학교	0.006	15
16	성신여자대학교	0.006	16
17	한국항공대학교	0.005	17
18	서울여자대학교	0.005	18
19	덕성여자대학교	0.004	19
20	동덕여자대학교	0.000	20

<표 40> 교환학생 파견비율

연번	학교명	교환학생 파견비율	순위
1	아주대학교	0.025	1
2	서강대학교	0.018	2
3	서울시립대학교	0.017	3
4	서울여자대학교	0.016	4
5	숙명여자대학교	0.016	5
6	한국외국어대학교	0.013	6
7	인천대학교	0.011	7
8	가톨릭대학교	0.010	8
9	용인대학교	0.004	9
10	한성대학교	0.003	10
11	강남대학교	0.003	11
12	광운대학교	0.002	12
13	덕성여자대학교	0.002	13
14	한국항공대학교	0.002	14
15	서경대학교	0.002	15
16	상명대학교	0.002	16
17	성신여자대학교	0.001	17
18	한신대학교	0.001	18
19	명지대학교	–	19
20	동덕여자대학교	–	19

● 목표

[외국인 재적생 비율 5위 3.8%]

○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

[교환학생 파견비율 5위 0.3%]

○ 국외 대학과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교류 실적 장려

구분	5위권	
	목표	연간 추가 필요 학생 수
외국인 재적생 비율	3.8%	명
교환학생 비율	1.6%	명

(2) 1인당 자료구입비 (중앙 5점), 1인당 장서수

(가) 중앙일보 국제화 평가지수

(나)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9위, 1인당 장서수 10위로 상위권

대학인증제에서는 대학도서관 평가지수의 충족여부로 판단함.

<표 41> 1인당 자료구입비

연번	학교명	1인당 자료구입비	순위
1	가톨릭대학교	336.403	1
2	서울시립대학교	252.814	2
3	숙명여자대학교	252.399	3
4	서강대학교	235.766	4
5	아주대학교	209.868	5
6	명지대학교	185.564	6
7	한국항공대학교	180.945	7
8	동덕여자대학교	137.074	8
9	한성대학교	136.973	9
10	서울여자대학교	134.282	10
11	한국외국어대학교	123.449	11
12	광운대학교	117.423	12
13	덕성여자대학교	115.140	13
14	상명대학교	93.720	14
15	한신대학교	92.276	15
16	인천대학교	78.819	16
17	성신여자대학교	68.534	17
18	강남대학교	55.646	18
19	서경대학교	50.416	19
20	용인대학교	34.115	20

<표 42> 1인당 장서수

연번	학교명	1인당 장서수	순위
1	덕성여자대학교	94.332	1
2	서강대학교	92.221	2
3	서울여자대학교	78.519	3
4	한국항공대학교	75.782	4
5	숙명여자대학교	73.522	5
6	서울시립대학교	71.545	6
7	명지대학교	70.939	7
8	한신대학교	69.894	8
9	아주대학교	69.872	9
10	한성대학교	60.647	10
11	강남대학교	60.109	11
12	성신여자대학교	59.874	12
13	가톨릭대학교	58.296	13
14	상명대학교	55.908	14
15	광운대학교	55.193	15
16	동덕여자대학교	50.772	16
17	용인대학교	50.231	17
18	인천대학교	46.878	18
19	서경대학교	46.623	19
20	한국외국어대학교_	35.906	20

(3) 교수 1인당 국내 학진 등재지, SCI급 논문수, 교수 1인당 저역서

(가) 국내 학진 등재후보이상 논문 0.593편 14위,
(나) 국제 SCI급 논문 0.033편 16위
(다) 교수 1인당 저역서 0.079편 15위

<표43> 1인당 국내 학진 등재(후보)지

학교명	학진	순위
한국외국어대학교	1.111	1
광운대학교	1.032	2
한신대학교	0.966	3
가톨릭대학교	0.806	4
덕성여자대학교	0.779	5
상명대학교	0.726	6
성신여자대학교	0.701	7
서강대학교	0.686	8
강남대학교	0.679	9
숙명여자대학교	0.674	10
서울여자대학교	0.672	11
인천대학교	0.659	12
서울시립대학교	0.607	13
한성대학교	0.593	14
동덕여자대학교	0.524	15
한국항공대학교	0.475	16
아주대학교	0.430	17
서경대학교	0.375	18
용인대학교	0.367	19
명지대학교	0.312	20

<표44 >1인당 저역서

학교명	저역서	순위
한국외국어대학교	0.416	1
한신대학교	0.241	2
용인대학교	0.154	3
강남대학교	0.152	4
숙명여자대학교	0.131	5
광운대학교	0.117	6
동덕여자대학교	0.110	7
서울여자대학교	0.102	8
인천대학교	0.098	9
상명대학교	0.097	10
성신여자대학교	0.091	11
서경대학교	0.088	12
가톨릭대학교	0.079	13
서울시립대학교	0.079	14
한성대학교	0.079	15
서강대학교	0.077	16
덕성여자대학교	0.075	17
아주대학교	0.061	18
명지대학교	0.060	19
한국항공대학교	0.033	20

<표45>1인당 SCI급 논문수

학교명	SCI	순위
광운대학교	0.440	1
아주대학교	0.409	2
서강대학교	0.399	3
명지대학교	0.368	4
서울시립대학교	0.247	5
한국항공대학교	0.238	6
덕성여자대학교	0.162	7
가톨릭대학교	0.156	8
숙명여자대학교	0.103	9
서울여자대학교	0.095	10
인천대학교	0.088	11
상명대학교	0.088	12
한신대학교	0.050	13
성신여자대학교	0.049	14
강남대학교	0.034	15
한성대학교	0.033	16
동덕여자대학교	0.028	17
서경대학교	0.027	18
한국외국어대학교	0.026	19
용인대학교	0.012	20

● 목표

○ 저서와 논문 등 연구 실적에 대한 환산율 적응 필요

– 현재 교수 연구업적에 대한 실적인정 환산율이 외부 평가의 인정 환산율에 비해 높게 인정됨

구분	10위권		
	현재 실적 평균	목표 실적	연간 추가 필요 실적
국내 학진급 논문	0.593	0.68	
국제 SCI급 논문	0.033	0.1	
저역서	0.079	0.1	

(4) 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 교외 연구비

(가) 교수 1인당 교내 연구비 5,351,000원 9위
(나)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12,596,000원 16위

<표 46> 1인당 교내 연구비

학교명	교내연구비	순위
숙명여자대학교	8,895	1
아주대학교	8,756	2
가톨릭대학교	8,571	3
서울시립대학교	8,357	4
광운대학교	8,068	5
한국항공대학교	6,343	6
서강대학교	6,288	7
덕성여자대학교	5,627	8
한성대학교	5,351	9
한국외국어대학교	4,379	10
서울여자대학교	4,345	11
한신대학교	4,047	12
강남대학교	3,618	13
인천대학교	3,606	14
명지대학교	3,368	15
성신여자대학교	2,574	16
상명대학교	1,735	17
동덕여자대학교	1,302	18
서경대학교	516	19
용인대학교	464	20

<표 47> 1인당 교외 연구비

학교명	교외연구비	순위
명지대학교	142,486	1
서강대학교	127,480	2
한국항공대학교	113,936	3
광운대학교	106,923	4
아주대학교	106,512	5
서울시립대학교	80,871	6
가톨릭대학교	37,092	7
인천대학교	32,015	8
숙명여자대학교	32,006	9
상명대학교	24,571	10
서울여자대학교	21,751	11
강남대학교	19,096	12
한국외국어대학교	18,375	13
용인대학교	17,804	14
덕성여자대학교	16,972	15
한성대학교	12,596	16
성신여자대학교	10,115	17
한신대학교	8,349	18
서경대학교	7,630	19
동덕여자대학교	6,278	20

● 목표
[1인당 교내 연구비 5위권 8,100,000원]
[1인당 교외 연구비 10위권 25,000,000원]
○ 교외 연구비 장려책 필요

구분	10위권			
	현재	목표	지표	연간 추가 필요 실적
교내 연구비	5,351,000원	5위	8,100,000원	
교외 연구비	12,596,000원	10위	25,000,000원	

(다) 단과대학별 전임교수 교내연구비 및 주제발표 지원금 현황

1) 교내연구비는 지원에 의하여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9위로 상위권인 반면, 전혀 장려책이 없는 교외연구비는 16위로 하위권이다.

2) 교내연구비의 1인당 평균 연구비 금액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
- 지급시점에서 연구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실적은 연구비 실적이 연간 단위로 보고되므로 이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나간 실적이 된다.
- 교수의 연구비 정산기간은 짧아지지만 연구기간을 지급시점 년도의 1월 1일부터 연구비 지급시점까지로 산정하는 교내연구비 금액을 올리는 방법일 수 있다.

<표 48> 2010학년도 단과대학별 교내연구비 및 주제연구발표 지원금 내역

단과대학	전임교수수	교내연구비				주제발표지원금				연구지원 합계(천원)
		건수	1인당 건수	1인당 평균액수	건당 액수	건수	1인당 건수	1인당 평균액수	건당 액수	
인문대학	32.0	58	1.813	9,312,500	5,137,931	38	1.188	575,000	484,211	316,400
사회대학	47.0	93	1.979	8,251,268	4,167,032	63	1.340	625,532	466,667	419,100
예술대학	48.0	84	1.750	9,050,000	5,162,629	105	2.188	1,016,667	464,762	483,200
공과대학	58.0	111	1.914	7,815,517	4,083,041	93	1.603	806,897	503,226	500,100
교양등	29.5	26	0.881	4,372,759	4,942,857	25	0.847	366,102	432,000	140,100
합계	215	372	1.734	7,945,164	4,582,311	324	1.510	718,881	475,926	1,858,900

* 건수는 1,2,학기 누적 교수수

3) 교외연구비 수혜에 관한 실적을 교내 연구비에 확대 적용하는 안 검토해 야 할 것이다.

(5) 교수 1인당 지적재산권(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기술이전수입액

(가) 1인당 특허출원 11위, 특허등록건수 13위
(나)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액 실적 없음

<표49> 특허 출원 건수

학교명	출원	순위
서울시립대학교	0.135	1
광운대학교	0.112	2
서강대학교	0.085	3
아주대학교	0.080	4
한국항공대학교	0.071	5
가톨릭대학교	0.057	6
명지대학교	0.053	7
인천대학교	0.028	8
한국외국어대학교	0.022	9
서울여자대학교	0.017	10
한성대학교	0.009	11
숙명여자대학교	0.007	12
상명대학교	0.006	13
성신여자대학교	–	14
용인대학교	–	14
서경대학교	–	14
덕성여자대학교	–	14
강남대학교	–	14
동덕여자대학교	–	14
한신대학교	–	14

<표50> 특허 등록건수

학교명	등록	순위
광운대학교	0.496	1
서강대학교	0.355	2
가톨릭대학교	0.319	3
아주대학교	0.262	4
한국항공대학교	0.248	5
서울시립대학교	0.234	6
명지대학교	0.201	7
한국외국어대학교	0.117	8
숙명여자대학교	0.046	9
인천대학교	0.045	10
서울여자대학교	0.031	11
성신여자대학교	0.013	12
한성대학교	0.009	13
덕성여자대학교	0.006	14
서경대학교	–	15
상명대학교	–	15
용인대학교	–	15
강남대학교	–	15
동덕여자대학교	–	15
한신대학교	–	15

<표51> 기술이전 수입액

학교명	기술이전	순위
광운대학교	2,190.3	1
서강대학교	1,838.7	2
가톨릭대학교	987.1	3
명지대학교	766.4	4
아주대학교	666.1	5
서울시립대학교	518.6	6
인천대학교	376.9	7
숙명여자대학교	232.1	8
성신여자대학교	96.8	9
한국항공대학교	70.9	10
한국외국어대학교	55.6	11
서울여자대학교	4.4	12
서경대학교	–	13
상명대학교	–	13
용인대학교	–	13
동덕여자대학교	–	13
덕성여자대학교	–	13
강남대학교	–	13
한성대학교	–	13
한신대학교	–	13

● 목표

[교수 1인당 특허출원 건수 10위권 0.018건, 등록건수 10위권 0.045건]

○ 기술이전 수입액 등 장려책 필요

(다) 직급별 교외연구비, 교내연구비,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표 52> 2010학년도 직급별 교외연구비, 교내연구비 및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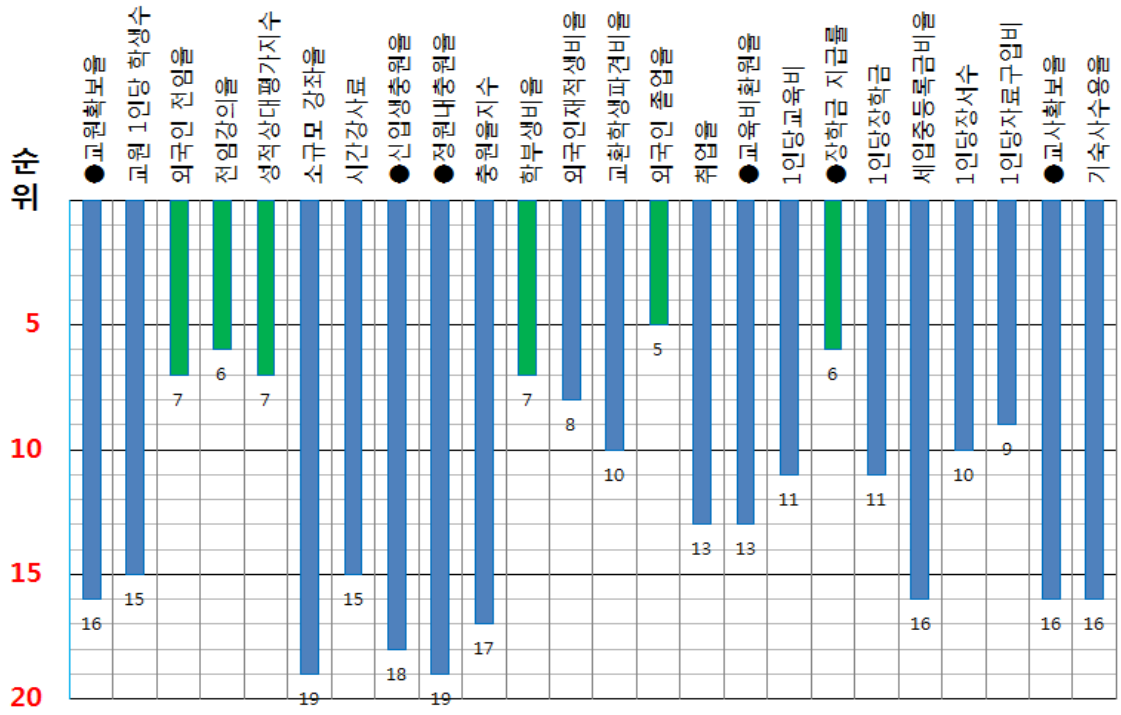
항목	교수구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외국인	합계
	인원	121.5	30	33	11	19	214.5
	비율	56.6%	14.0%	15.4%	5.1%	8.9%	100%
교외연구비 (단위 천원)	건수	35	11	14	4		64
	총액	1,748,577	685,243	570,547	55,142		3,059,509
	액수/건	49,959	62,295	40,753	13,786		47,805
	1인당건수	0.288	0.367	0.424	0.364		0.298
	1인당액수	14,392	22,841	17,289	5,013		14,263
교내연구비	건수	205	80	65	22		372
	총액	953,450,000	362,200,000	300,450,000	88,600,000		1,704,700,000
	액수/건	4,650,976	4,527,500	4,622,308	4,027,273		4,582,527
	1인당건수	1.687	2.667	1.970	2.000		1.734
	1인당액수	7,847,325	12,073,333	9,104,545	8,054,545		7,947,319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건수	8		3	2		13
	1인당건수	0.066	0.000	0.091	0.182		0.061

- 전임교원 중 교외연구비 1인당 과제건수는 조교수가, 1인당 과제금액은 부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내 연구비는 1인당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에서 모두 부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전임강사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4 평가지표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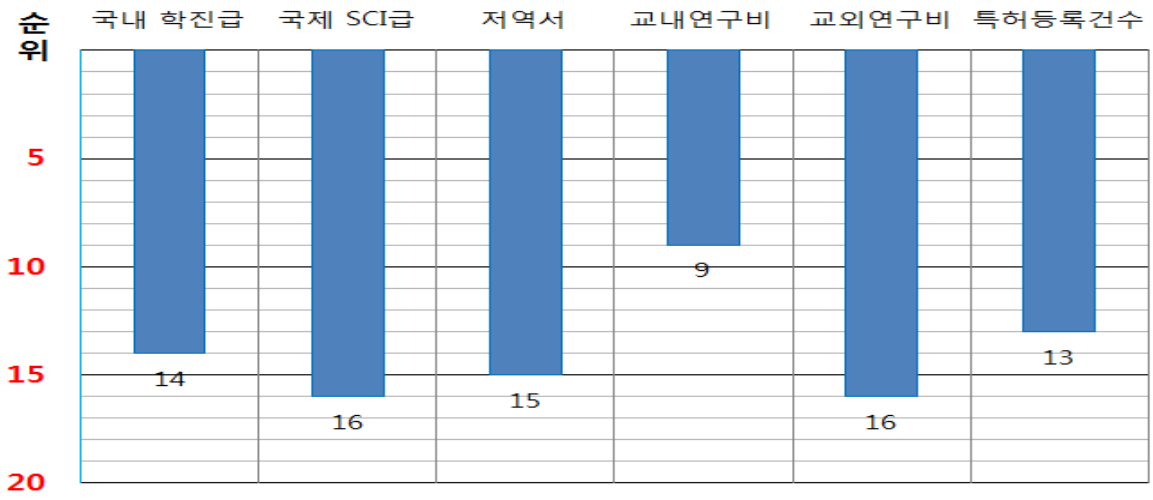
(1) 교육 및 시설재정 영역 지표순위 요약

<그림 6> 교육 및 시설재정 영역 지표순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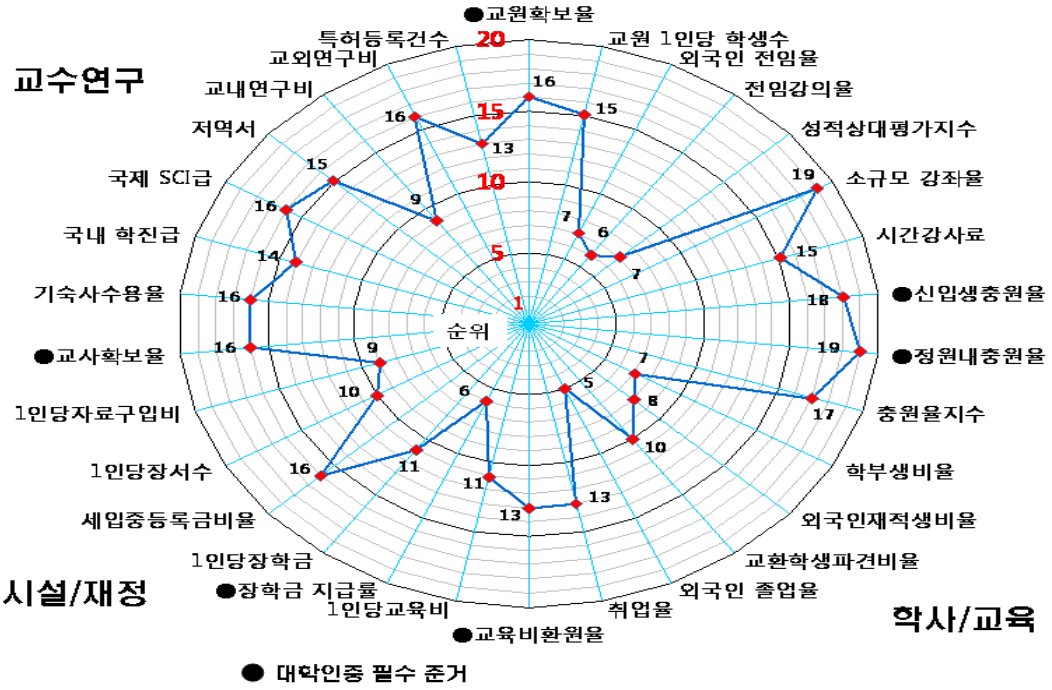
(2) 교수 연구실적의 요약

<그림 7> 교수 연구실적의 요약



(3) 평가지표의 요약

<그림 8> 한성대학교 주요 평가지표 요약



※ 평가지표별 준거대상 비교대학 20개 대학에서의 순위

2. 결론 및 검토

2.1 패러다임 변화 필요

(1) “정보공시 자료는 소중한 자산” 인식

(가) 외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구성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1) 매년 대학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든지 누구든지 학교간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 “대학 알리미” 정보의 공개로 공시된 자료는 홍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3) 대학평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본교 상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2) 정보공시 대응체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가) 돈 내야 홍보할 수 있지만, 대학정보공시는 바로 홍보와 외부 평가에 그대로 이용된다.

1) 외부에서 인정하는 평가지표의 제고를 위하여 조직의 행정과 평가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변화하는 평가지표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조직도 대응해야 한다.

1) 외부의 평가지표 종류와 평가방법은 단기간 내에도 변하고 있다.
2) 변화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모르면 중대한 손실이 될 수도 있다.
3) 인사고과 평가에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
   - 정보공시 자료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외부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2.2 조직적 대응의 필요

(1) 교육중심인가? 연구중심인가? 복합 추구형인가? 평가지표도 연동하여 움직여야 한다

(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

1) 조직의 역량이나 인센티브 체계를 사회가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맞추어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다.

(나) 개선목표 지표와 최소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규정과 예산을 외부평가에 대응하는 정책 검토
2) 교수의 업적평가, 학과평가 등을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의 선택과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검토

(2)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조직 검토

(가) 대학정보공시제 관리항목 및 대학내 실무담당 부서의 인식 필요

1) 대학내 다양한 정보 항목들을 매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있음
2) 실무 담당부서의 자료가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점검체계 및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나) 대학정보공시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 신설 검토

1) 수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대학간 비교평가를 통해 본교 상태를 목표관리
- 정보공시 항목의 관리를 위한 “대학정보관리 실무위원회” 신설 검토
- 평가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정책위원회” 검토